

'민생경제 앞으로 전주발전 제대로'

민주 전주를 선대위 이재명 후보 승리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선거대책 위원회는 20일 이재명 대선후보 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을) 상임선대위 원장을 맡고 있는 양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장영달 전 국회의원, 김영복 변호사, 전영배 전주시 노인회 회장 박서규 전 전주농협 조합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선 승리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한 데 모았다.

양경숙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송영길 당 대표, 정세균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전 국무총리), 정성호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의 영상 축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장영달 전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한숨을 덜어주는 더 새롭고 더 유능한 민주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놀라운 정책능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이재명 대선후보 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필승결의대회를 주관한 양경숙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전주시(을) 당원들이 모두가 양경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선 승리와 4기 민주정부 창출의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놀라운 정책능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양경숙

상임선대위원장과 도의원, 시의원을 중심으로 원팀 선대위를 만들어 전국 최대 득표율로 민주 정부 3기를 만들었던 전북의 저력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전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청년층 지지가 낮은 것은 불공정 문제도 있지만, 우리사회에 풀어야 할 과제로 인한 갈등 문제도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저성장을 성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 뿐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민생경제 앞으로 전주발전 제대로, '나와 이웃을 위해 이재명'이라고 쓰인 배지와 포스터와 일명장 수여식에 이어, 제4기 민주 정부

창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필승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인 양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면서 "민주당과 30년을 함께한 제가 당원분들을 중심으로 받들면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양경숙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30대 이하 유권자들의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 전주를 선대위는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포용복지국가 만들자"

민주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국내 복지단체와 소통의 장 마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선대위원장 남인순 의원)가 전북도 사회복지계, 장애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연이어 여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는 지난 19일 전북도 사회복지계의 초청을 받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포용복지국가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김성주 국회의원과 이명연 전북도의원, 이원식 전북사회복지사업회 회장과 김효준 한국시니어클럽 전북지회 회장, 장철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명연 회장은 "서비스 수혜자 질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먼저"이며, 이는 서비스의 질과도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 사회복지계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지급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 제도, ▲장애인 생산 물품 우선구매를 향한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요구했다.

이어 열린 전북 범 장애인계의 간담회에도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과 이명연 전북도의원, 그리고 김철환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전북지부장과 임예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주지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 범 장애인계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여성장애인 위한 주간보호센터 통합상담소 추진, ▲발달장애인과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 ▲맞춤형 휠체어 보급 위한 지원 확대 등이다.

이후, 전주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포용복지국가위는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간담회에는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과 조경애 총괄본부장이 포용복지국가위를 대표해 참석했다.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김권희 전주의료복지사회회 이사장과 고선미 전무이사, 고은하 전주지역사회복지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들 주요 제안 정책으로는 ▲의료사업 통합 돌봄 지원센터 설립, ▲간담회이양성 및 일자리 수행기관 확산, ▲의료사업 근무 사회복지사 경력 불인정 개선 등이다.

마지막으로, 포용복지국가위는 김성주 국회의원과 조경애 총괄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한의사회와의 간담회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양선호 전북한사회회장과 김일수 총무이사, 김택형 학술이사, 조종득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 한의사회는 ▲전북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화, ▲한의학 매개방관사업 확대, ▲도립한방병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장에서 뛰는 종사자들과 운영자, 보호자 등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가 매우 뜻깊었다"면서 "현장에서 제안해 준 정책을 토대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주시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우리가 꿈꿔왔던 건강과 복지가 결합한 성공적인 모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선거 후에도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을 위해'... 미래시민광장위 전북본부 출범

민주주의 가치 등 내걸고 민주당 대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미래시민광장위원회는 20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전북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전북본부는 ▲민주주의 가치 ▲한반도 평화와 번영 ▲민생 중심의 정치혁신 ▲공정사회 실현 등의 가치를 내걸고,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선봉에 전북이 나선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엔 이해찬 상임고문과 조정식 상임위원장 및 각계 주요 인사 가 직접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고 환영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갈릴갈릴 되는 중요한 선거"라며 "저는 대선 여러 번 치러왔는데 이번 대선처럼 엄중한 선거 없었던 때 반드시 승리해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 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미래시민광장위원회는 20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전북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보에게 힘을 실어 준 바가 있다.

그러면서 "얼머리가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일숨씨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매끄러운 면이 있었다. 대선 준비를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며 "어디 내놓아도 토론을 잘하고, 무슨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갖고 있는 건 우리 당으로서, 또 나라로서 큰 행복이다"고 밝혔다.

조정식 상임위원장은 "미래시민광장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출범식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며,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길은 4기 민주정권 창출과 확실한 개혁의 실천"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그 유일한 대안이며,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유호상 기자

두세훈 도의원 "완주 수소경제 황금시대 열거할 것" 약속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인 두세훈 도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완주군에 수소국 가산업단지 지정을 약속하며, '완주군 수소경제 황금시대'를 열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두 의원은 "완주군 수소경제 황금시대 첫 번째 공약으로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유치를 약속하며, '완주군 수소경제 황금시대'를 열거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수소산업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전문대학원'을 유치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한 "완주군에 설립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에 이어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 수소충전소 및 전기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지속가능 국가 위해 탄소중립 백만행동 나서자"

기후위기탄소중립 전북위 · '나부터 실천 전북행동' 각각 출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북행동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기후위기 탄소중립 위원회(상임위원장 안호영)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전북행동(상임위원장 김택천)'이 20일 각각 출범식을 갖고 탄소중립 도민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전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안호영 상임위원장(완주, 진안, 무주, 장수 국회의원)과 윤준병 대전환 선대위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양이원영 수석부위원장



(비례대표) 김택천 전북위 상임위원장, 송승룡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고 이재명의 탄소중립 백만 국민행동 온라인 플랫폼을 도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과

정책제안 플랫폼을 선보여 탄소중립 도민행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탄소중립 백만행동에 앞장서자"며 "우리의 선언이 이재명 후보 승리와 탄소중립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큰 물결을 이루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전북행동"은 이날 김택천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오창환 공동위원장, 김보급 공동위원장, 김은경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나의 다짐 등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전북행동 공동 사무처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두 출범식 모두 '회용품 없는 행사, 자료집 없는 행사, 현수막 없는 행사'로 진행했다"며 "선거 이후에도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행동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누구나 건강한 삶 누리는 사회"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복지 분야 정책·공약 발굴 나서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총무진흥원장이 사회복지계와 한의사회 등 관련 단체를 만나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특히, 평화동 일대에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집중됐다고 해서 낙후된 지역이 아닌 오히려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의 관심과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이후, 조 전 경진위원장은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욱 편해지는 것이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준이었다. 이 기준을 통해 도시를 평화동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범기 전 부지사 출판기념회

우범기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저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출판 기념회를 마련했다.

전주출마 예정자인 우 전 부지사의 저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는 광주 부시장 시절부터 고심해온 전주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한 번쯤 깊숙이 들여다 보아 할 내용들을 1부와 2부로 나눠

총 26편에 심혈을 기울여 담았다. 우 전 부지사는 발간사에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크게 혁신해야 한다"며 "디지털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소통과 연대다. 관계야말로 워드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새로운 문명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우리의 미래 세대가 또 다시 이 땅 전주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말하며, 가는 걸음에 동참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